

주요국의 리비아 사태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한바란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동팀 부연구위원(brhan@kiep.go.kr, Tel: 3460-1110)

윤서영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동팀 연구원(syyun@kiep.go.kr, Tel: 3460-1040)

박연경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동팀 연구원(ykpark@kiep.go.kr, Tel: 3460-1099)

강유덕 국제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ydkang@kiep.go.kr, Tel: 3460-1123)

고희채 국제경제실 북미·대양주팀 전문연구원(hcko@kiep.go.kr, Tel: 3460-1086)

노수연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 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syno@kiep.go.kr, Tel: 3460-1284)

이철원 국제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cwlee@kiep.go.kr, Tel: 3460-1071)

조영관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부연구위원(ykjo@kiep.go.kr, Tel: 3460-1209)

차 례 ●●●

1. 서론
2. 리비아 대외 정치 및 경제 관계
3. 리비아 사태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현황
4. 시사점

주요 내용 ●●●

- ▶ 지난 8월 22일 반카다피 시민군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에 입성, 리비아 시민전쟁의 종식이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재건 및 원유 관련 사업에 참여하려는 각국 정부와 기업의 시장 탐색이 본격화되고 있음.
 - 전쟁 초기부터 시민군을 지지해온 EU 국가들은 1억 5천만 유로 규모의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사절단을 파견하고 대리비아 투자·자선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간·민간 네트워크 활성화에 힘쓰고 있음.
 -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내전 초기 카다피 정권을 지지하며 NATO의 리비아 공습에 반대하였으나 시민군의 세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입장을 선화한 후 현재는 향후 자국의 리비아 시장 진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도국가 위원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임.
 - 미국은 시민전쟁 종식 후 리비아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이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터키는 7월 리비아에 3억 달러 지원을 선언하는 등 향후 재건사업 주도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음.
- ▶ 한국이 리비아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터키 등의 국가와 유사한 수준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우리 건설업체의 높은 현지 인지도와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전후 재건복구 시장 진출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임.
 - 원활한 진출을 위해 기존에 한국과 함께 리비아 건설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터키와 중국의 진출 전략 및 현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동부 출신을 중심으로 신정부가 구성되고 부족 간의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부족장과의 네트워크 교류 강화가 시급함.
- ▶ 또한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리비아 국민을 돕는 동시에 우리의 현지 이미지 제고에 힘써야 함.

1. 서론

■ 지난 8월 22일 반카다피 시민군이 수도인 트리폴리에 입성함에 따라 리비아 시민전쟁의 종식이 머지않은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2월 16일 리비아의 동부지역에 위치한 벵가지에서 발발한 반카다피 시위를 카다피 정권이 강경 진압하면서 시민전쟁으로 확대됨.

- 3월 17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국적군의 리비아 개입과 카다피 일가에 대한 경제제재를 승인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비행금지구역(No-Fly-Zone) 설정 및 군사작전을 시행함.

- 7월 15일 리비아 연락그룹회의에서 리비아 시민군의 자치 기구인 과도국가위원회(National Transitional Council)를 리비아를 대표하는 합법 기구로 인정함.

※ 리비아 연락그룹에는 미국과 NATO, 유럽연합(EU), 아랍연맹의 일부 회원국 등 32개국과 7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7월 4차 회의부터 참여했음.

- 8월 14~15일 시민군은 트리폴리로 향하는 물자 수송로와 송유관을 차단, 마침내 사태 6개월 만인 22일 트리폴리에 입성함.

- 카다피 지지 세력의 저항이 소규모로 지속되고 있으나 수 주 내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됨.

■ 9월 1일 파리에서 개최된 리비아 우호국 회의(Friends of Libya Conference)에서는 한국을 포함, 63개국이 리비아 내전 후속조치 조율을 위해 모여 포스트-카다피 체제의 정정 안정 및 치안 유지, 재건비용 조달 방안 등을 논의함.

- 과도국가위원회의 무스타파 압둘 잘릴 위원장은 향후 8개월 내에 제헌위원회(200명, 직선제) 구성, 신헌법 초안 마련, 20개월 내에 대통령 선출(2013년 5월 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리비아 정치경제 로드맵을 발표함(9월 2일).

- 국제사회는 카다피 측의 군사적 위협 대응 및 치안 유지를 위해 NATO의 군사작전을 당분간 지속하기로 결정함.
- 재건비용 마련을 위한 조치로 각국은 총 150억 달러에 달하는 리비아의 해외 동결자산을 즉각 방출하는 데 합의함.

■ 비교적 온전히 보존된 석유 생산설비, 국제 오일메이저들의 생산재개 움직임, 부족 간 형평성 있는 의사결정 구조로 비추어 볼 때 리비아 정국은 전쟁 종식 후 어렵지 않게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임.

- 리비아 동부 석유 생산시설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석유생산은 1~2년 내에 내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평가되며, 반군이 트리폴리에 진입한 이후 ENI(이탈리아) 등 일부 국제 오일메이저들은 생산재개를 준비함.

- 리비아는 부족사회로 카다피 통치하에서도 부족 간의 합의를 통해 이권을 분배해 온 바 있음. 따라서 향후 신정부 수립 시 이라크에서와 같은 사회적 혼란은 예상되지 않음.

■ 이 글에서는 내전 이전 리비아의 대외 정치·경제 관계를 바탕으로 내전 이후 주요국의 대응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2. 리비아 대외 정치 및 경제 관계

가. 대외 정치

■ 1969년 무혈 쿠데타로 친(親)서구왕정을 무너뜨린 카다피는 2003년까지 범(汎)아랍주의, 반(反)유대주의, 반서구주의, 반식민주의가 혼합된 나세르주의(Nasserism)¹⁾를 바탕으로 한 이슬람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각국의 반체제, 반서구적 게릴라 활동과 테러를 지원·주도함.

- 카다피는 1977년 소련식 공산주의가 아닌 코란의 교리와 아랍 문화가 융합된 자체적인 이슬람 사회주의 체제를 정립하며, 사회주의 인민주권주의(자마히리야, Jamahiriya) 국가를 수립함.

- 특히 각국의 게릴라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테러 행위를 적극 주도하며 서방국가 및 이스라엘 지지 세력과 대립함.

- 1970~90년대: 아일랜드 공화국군(IRA)의 테러활동 지속 지원
- 1986년: 미군이 자주 찾던 베를린의 La Belle 나이트클럽 폭파
- 1988년: 런던발 뉴욕행 팬암기 폭파(로커비 사건)
- 1989년: 콩고민주공화국발 차드 경유 파리행 UTA기 폭파

■ 리비아의 테러행위를 응징하기 위해 UN과 미국은 대리비아 경제제재를 시행하였고, 이에 리비아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음.

- 1981년 미국의 자국민 리비아 여행 금지를 시작으로 미국과 UN의 경제제재가 시행됨.

- 제재로 인해 리비아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인 석유 수출이 제한되면서 리비아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음.

- 1959년 Esso사(현 ExxonMobil사)의 유전 발견 이후 석유는 리비아의 주된 경제적 수입원으로 자리 잡음.

1) 가말 압델 나세르 제2대 이집트 대통령은 1952년 이집트 혁명을 주도하여 국왕 파루크를 추방하고, 1956년 국민투표로 대통령에 선출됨. 그는 범아랍주의를 내세워 아랍 국가들이 결속하여 서방국가와 대립구도에 서도록 선동함으로써 카다피를 비롯한 여러 아랍 지도자들과 국민에게 영향을 미침.

표 1. 대리비아 경제제재

미국의 경제제재	UN의 경제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자국민 리비아 여행금지 선언 • 1982년: 리비아 석유와 대리비아 수출 일부 금지 • 1986년: 베를린 디스코테크 폭탄 테러 후 경제 제재가 직접적 수출입과 상업적 계약 및 여행 관련 활동의 금지로 확대됨. • 1996년: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 발효로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여 석유산업을 제외한 산업기반이 미비한 리비아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가함 • 2001년: 미국은 리비아나 이란에서 매년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는 비(非)미국 기업에 대해 미국 대통령의 응징을 허락하도록 제재법 개정 • 2003년: UN 제재 해제에 반대하진 않았으나, 미국의 자체적 제재는 유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안보리 결의안 748(199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스코틀랜드 팬암기 103과 1989년 프랑스 항공기 UTA 폭파사건에 대한 조사 요구 이행과 모든 테러 지원 및 활동을 중지할 때까지 군사활동 제재 실시 ◦ 기권(5): 케이프베르데, 중국, 인도, 모로코, 짐바브웨 ◦ 찬성(10):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콰도르, 헝가리, 일본, 베네수엘라 • UN 안보리 결의안 883(1993년): 결의안 748 통과 후 12개월간 리비아가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석유산업 중심의 추가 경제 제제를 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권(4): 중국, 지부티, 모로코, 파키스탄 - 찬성(11):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브라질, 케이프베르데, 스페인, 헝가리, 일본, 뉴질랜드, 베네수엘라

○ 리비아의 석유 매장량은 464억 배럴로 하루 165만 배럴의 고품질 원유 생산이 가능함(2010년 기준). 석유산업은 리비아 총수출의 95%, 전체 정부세입의 80%, GDP의 25%를 차지함.

■ 카다피는 2003년 역내의 정치적인 영향력 확장과 리비아의 경제발전을 위해 서방과 우호·협력 방향으로 노선을 전환함.

- 2003년 리비아는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선언하면서 로커비 사건과 UTA 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전달함(2004년).²⁾

- 이후 양국 관계의 호전으로 미국은 리비아 여행금지를 비롯한 모든 경제제재를 해제, 주리비아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2004년, 2009년에 정식 대사 파견)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삭제함(2006년).

- 특히 고품질 원유 공급 가능성과 지리적 근접성 등을 이유로 EU 국가들은 리비아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였고, 이에 리비아·EU 간 항공·교통·군사·관광 등에 대한 협력이 활성화됨(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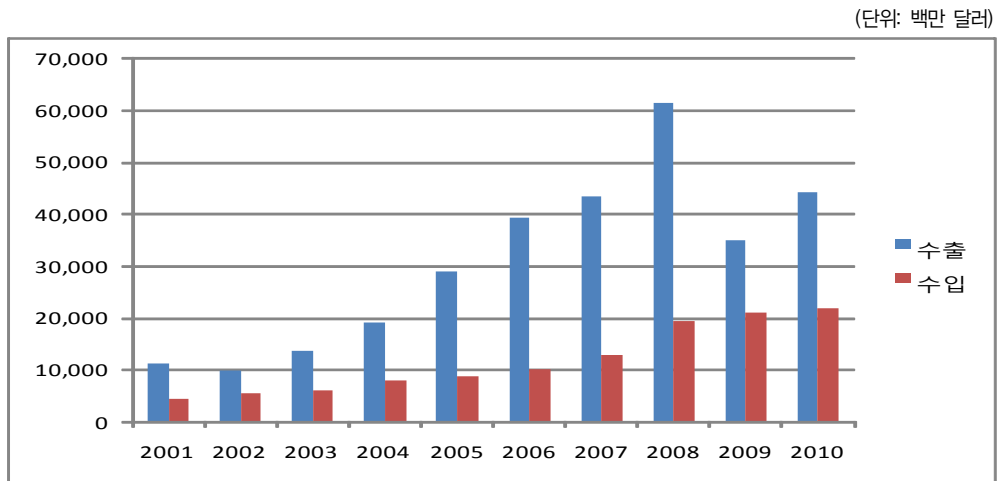
나. 대외 경제

■ 2010년 리비아의 국내총생산은 약 742억 달러로, 7.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교역규모는 2010년 기준 662억 달러 규모로 지난 10년 동안 500억 달러 이상 증가함.

2) 팬암기 테러 책임을 인정하고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27억 달러의 보상금 지급 합의(2003년), UTA 항공기 테러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1인당 100만 달러, 총 1억 7,000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 합의(2004년).

- 리비아의 2010년 무역규모는 수출 442억 달러, 수입 220억 달러로 이는 2001년 수출 113억 달러, 수입 44억 달러에 비해 각각 3.9배와 5배 증가한 규모임.
- o 이는 2003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이 수출증가로 이어진 것임.

그림 1. 리비아 교역 규모 추이(2001~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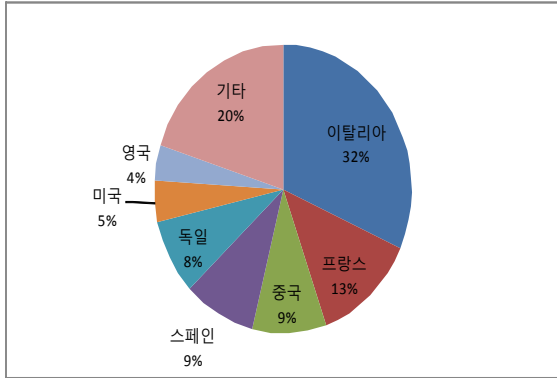
자료: DOT(2011. 6).

- 석유부문은 리비아 총수출의 95%를 차지함.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류, 운송장비, 반제품, 식품, 소비재 등임.
- o 리비아의 원유 수출량은 2010년 기준 일일 약 150만 배럴로 세계 원유 수요의 2%에 불과하나 세계 경질유³⁾ 시장에서는 공급 점유율이 10%에 달함.
- o 리비아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이탈리아(140억 달러), 프랑스(57억 달러), 중국(41억 달러), 스페인(40억 달러), 독일(37억 달러) 순임.
- o 리비아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이탈리아(36억 달러), 중국(23억 달러), 터키(21억 달러), 프랑스(15억 달러), 독일(14억 달러) 순임.
- ※ 한국은 2010년 기준 리비아의 6대 수입 대상국(14억 달러)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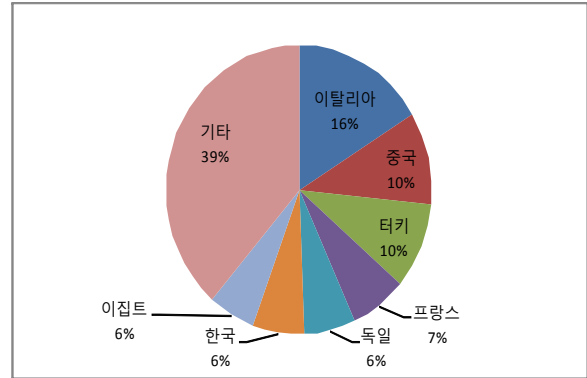
3) 경질유(輕質油)는 미국석유회(API)가 정한 비중 측정단위 34도 이상의 원유, 즉 비중이 가벼운 원유를 의미함. 기술란나프타등유 등 이용가치가 높은 성분을 함유한 원유일수록 비중이 가벼움.

그림 2. 리비아의 주요 교역 상대국 비중

〈주요 수출대상국〉



〈주요 수입대상국〉



자료: DOT(2011. 6).

- 리비아의 해외투자 규모는 133억 달러(2010년 기준, 누계액), 세계의 대리비아 투자는 193억 달러(2010년 기준, 누계액)였음(UNCTAD 2010).
- 리비아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UAE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건설시장임.⁴⁾
 - 리비아 건설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 GDP의 약 6% 수준임. 리비아 정부는 2010년 총 5,000억 달러 규모의 477개 프로젝트를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리비아 건설시장은 크게 한국, 터키,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2011년 2월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각각 105억 달러, 150억 달러, 188억 달러에 달함.

3. 리비아 사태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현황

가. EU

- 리비아와 전통적으로 밀접한 정치·경제 관계를 맺어온 EU 국가들은 내전 종식을 앞두고 정부간·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향후 경제재건 및 원유 관련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 EU는 리비아의 제1교역 파트너로 리비아 총수출의 78%(약 343억 달러), 수입의 42%(약 92억 달러)를 차지함.⁵⁾

4) 해외건설 종합정보서비스(2011. 9).

5) DOT(2011. 6).

- 리비아는 2010년 총 원유 수출의 85%를 EU 국가들로 수출함.
- EU는 반카다피 시민군에게 힘을 실어준 NATO의 군사개입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시민전쟁 발발 이후 약 1억 5천만 유로 규모의 인도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이번 시민전쟁을 통해 리비아의 주요 외교 및 경제 파트너로서 입지를 확고히 함.
- EU 내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기체결한 계약의 유효성 보장과 향후 신규 계약 체결을 위해 기업 사절단을 파견하고 자국으로 리비아 과도국가위원회의 관계자를 초청하는 등 정부간·민간 네트워크 확장에 나섬.
- 과도국가위원회는 과거 카다피 정부하에 추진된 서방기업들과의 계약을 준수할 것이나 카다피 측근의 부패와 관련된 계약의 경우 취소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일부 기업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 이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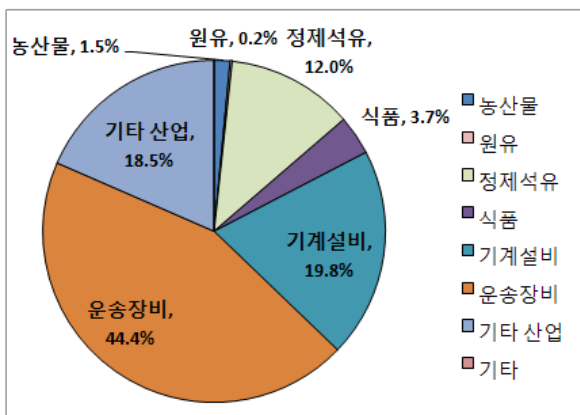
- 리비아와 전통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탈리아는 이번 리비아 시민전쟁 종식 이후 리비아의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음.
- 이탈리아는 과거 리비아를 식민통치(1911~47년)한 바 있으며, 리비아 독립 이후에도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옴.
- 이탈리아는 리비아 제1의 수출·수입국으로 2008년 리비아의 대이탈리아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체의 34%, 22%를 차지하였음.
- 리비아는 이탈리아의 다섯 번째 수입국이며 이탈리아는 총 석유 수요의 25%, 총 가스 수요의 20%를 리비아로부터 충족함.
-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카다피와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시위 발발 이후 리비아와의 친선·협력 조약 발효 중지를 선언하는 등 리비아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며 카다피 정부와 거리두기를 시작함.
- 내전 초기 카다피군에 대한 NATO의 공습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였던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카다피군이 수세에 몰리고 시민군의 우세가 강화되자 입장을 바꿔 7월부터 시민군에 대한 지지를 표현함.
- 8월 25일 과도국가위원회의 2인자인 마무드 지브릴이 외국정상 중에는 처음으로 베를루스코니 총리와 회담을 가짐.
- 이탈리아 정부는 리비아에 합법적인 정부가 구성될 경우 기존의 양국간 계약(민간계약 포함)이 유효할 것임을 강조하고 과도국가위원회 대표 또한 카다피 정권하의 모든 협정이 유효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 특히 이탈리아 최대의 석유기업인 ENI가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 ENI는 1950년대부터 리비아에서 원유를 생산하여 왔으며 내전 이전 리비아에서 하루 27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 리비아 총생산의 17%를 차지함. ENI는 2010년 미화 1,420억 달러의 매출 중 13%를 리비아에 의존함.

- ENI는 리비아 정부와 시민전쟁 이전에 각각 2042년과 2047년까지 석유와 가스채굴 계약을 맺은 상태이며, 이를 위해 2040년까지 2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ENI는 자사의 원유 생산지역인 벵가지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생산재개 가능성 조사를 시작함(이탈리아 프라티니 장관 8월 22일 성명서).
- ENI 지분의 30.3%를 보유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는 ENI의 이익을 위해 경제·외교적 차원의 대폭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임.

2)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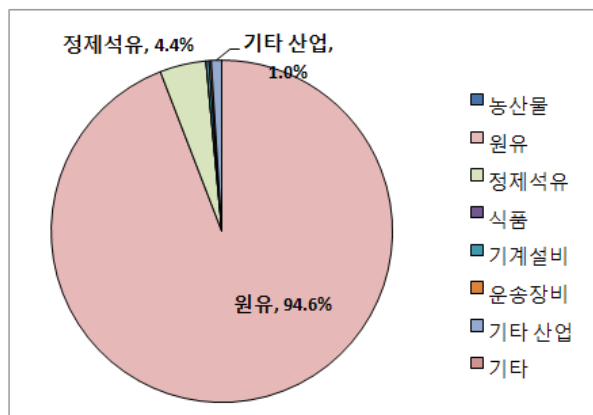
- 리비아의 제3교역국인 프랑스는 카다피 정부에 대한 NATO 공습을 사실상 주도하고 과도국가위원회를 가장 먼저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는 등, 리비아 내전 및 전후 복구계획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로 급부상함.
- 리비아는 프랑스의 주요 원유 공급국(전체 원유 수입의 16% 차지)으로 카다피 집권시절부터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음.
- 프랑스는 이탈리아, 독일에 이은 리비아 제3의 교역국이며, 리비아의 2009년 대프랑스 수출은 리비아 총수출의 9%를 차지함.
- 프랑스의 대리비아 수입은 98% 이상이 원유 및 정제석유이며, 프랑스는 리비아에 운송설비(항공기 및 차량), 기계설비 및 산업장비, 정제석유 등을 수출하고 있음.
- 리비아로부터의 원유수입은 2000년대 중반까지 프랑스 전체 원유수입의 5% 미만이었으나, 2004년 체결된 상호투자보호협정을 바탕으로 프랑스 기업(예: Total)의 리비아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급증, 2010년에는 16%을 기록함.

그림 3. 프랑스의 대리비아 수출
(2009년, 총 7.2억 유로)



자료: 프랑스 재무부(DG Tresor).

그림 4. 프랑스의 대리비아 수입
(2009년 총 22.6억 달러)



자료: 프랑스 재무부(DG Tresor).

- 프랑스는 카다피 정부에 대한 NATO 공습을 사실상 주도했으며, 과도국가위원회를 가장 먼저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한 바 있어 향후 리비아와의 정치·경제 협력에서 매우 유리한 입장임.

- 5월 14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과도국가위원회의 마흐무드 지브릴 대표와 회담한 바 있음. 이는 비슷한 시기 지브릴 대표와의 공식적인 만남을 피했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와 대조적임.
- 사르코지 대통령이 NATO의 공습 결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배경에는 국내의 낮은 지지율을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임.
- 특히 지난 프랑스 지방선거(3월 20일)에서 사회당에 패하고, 극우정당의 부상으로 정치적 입지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르코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리비아의 재건과정에서 프랑스의 역할을 강조하고 프랑스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11년 1월 튀니지, 이집트 시민혁명 초반 기존 정부를 지지하였던 외교적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리비아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북아프리카 내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 이라크 재건과정에서 배제된 경험이 있는 프랑스 기업들은 전후 리비아 복구에서 자국의 정치적 입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프랑스 재계는 프랑스-리비아 상공회의소(CCFL)의 주도하에 이미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20개 기업대표로 구성된 기업사절단을 리비아에 파견하였고 9월 중 뱅가지와 트리폴리에 기업사절단을 추가 파견할 계획임.
- 참가기업은 Total(석유), Alcatel-Lucent(전자·통신), EADS(방위), Veolia(상하수도), Sanofi-Aventis(제약), Thales(방위), GDF(프랑스가스공사), Suez(상하수도), Entrepose(석유·가스 플랜트) 등 프랑스 대표 기업으로, 이들은 기존 리비아에서 체결한 계약이 있으나 내전으로 인한 철수로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임.
- 방문 기간 중 기업사절단은 과도국가위원회의 각 부서 책임자들과 향후 국정운영 및 재건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 계약을 재개할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CCFL의 카잘 회장에 따르면 과도국가위원회는 리비아와 프랑스 기업 간의 계약을 모두 준수할 것임을 밝혔으며, 일부 프랑스 언론은 과도국가위원회가 리비아 정유생산의 35%를 프랑스 기업에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함.
- 이러한 보도는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프랑스 기업에 대해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3) 독일

- 리비아의 제2의 교역국인 독일은 카다피에 대한 NATO의 공습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시민군의 승리가 점쳐지자 과도국가위원회에 1억 유로의 원조를 약속하는 등 신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섬.
- 독일과 리비아의 관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제재가 가해지던 1980년대에도 독일정부는 비공식적으로 리비아 군대와 경찰을 자국 내에서 훈련시키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바 있음.
- 양국 관계는 1986년 리비아 정부가 연루된 베를린의 La Belle 나이트클럽 테러사건 이후 급속도로 냉각되었

으나 2004년 9월 리비아 정부의 피해보상을 계기로 개선되었음.

- 독일은 리비아로부터 총 원유 수입의 11%(3위)를 충당할 뿐만 아니라 30~50개의 인프라, 기계설비, 엔지니어링 분야의 독일기업이 리비아에서 활동함.
- 독일은 지난 3월 NATO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때 EU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기권(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또한 기권)하는 등 군사적 개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
 - o 이는 ① NATO의 카다피군에 대한 공습이 UN 군사중재결의안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판단과 ② 국외 군사 개입에 대한 독일 내의 부정적인 여론, ③ 주의회 선거 등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집권 기민당의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임.
- 시민군의 승리가 예상되면서 독일정부는 과도국가위원회에 1억 유로의 원조를 제공하는 한편, 73억 유로에 이르는 카다피의 동결자산에 대해 환수를 약속하는 등 과도국가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약속함.

■ 시민전쟁 초기 군사 개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과도국가위원회로부터 특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독일기업이 특별히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특히 재건과정에서 독일산 산업기기,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독일 20개 기업의 대표단은 독일·아프리카 경제연합회(DIHK)의 주도하에 뱅가지 등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한 바 있음.
 - o Strabag(도로건설), RWE Dea(원유시추), Wintershall 등의 독일기업들은 조만간 업무재개를 위해 대표팀을 파견할 계획임.
- DIHK는 베를린에서 과도국가위원회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대규모의 대리비아 투자 및 자선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임.
- DIHK에 따르면 독일기업이 리비아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리비아 정부의 투명성이 개선될 경우 오히려 독일기업들에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엔지니어링과 중장비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높은 독일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임.

4) 영국

■ 국교정상화(1999년)와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포기(2004년) 이후 리비아와의 정치·경제 관계를 강화해온 영국은 이번 사태 때 프랑스와 함께 NATO의 공습을 주도함.

- 영국은 1984년 리비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단절하였고, 1988년 팬암 여객기 추락사건(록커비 사건) 이후 대리비아 제재에 적극 가담하였으나 2003년 카다피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면서 양국간 정치·경제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됨.

- 영국의 대리비아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류 및 운송장비, 제조업 제품이며, 수입품목은 99%가 원유 및 가스 부문임.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리비아로부터의 원유 수입은 영국의 2010년 총 원유 수입의 4%를 차지함.

그림 5. 영국의 대리비아 교역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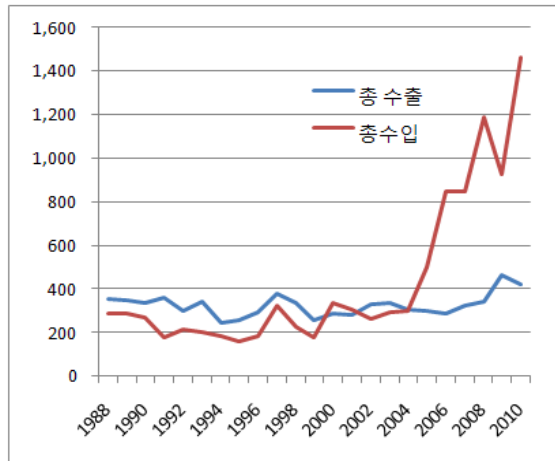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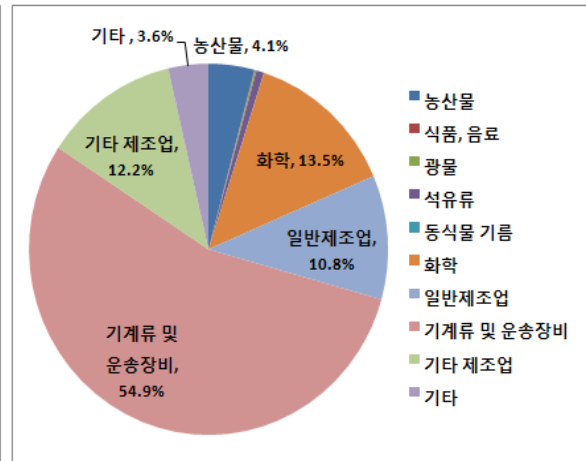


그림 6. 영국의 대리비아 수출(2010년)



■ 영국은 과도국가위원회의 정치적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이거나 이탈리아나 프랑스 정부에 비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음.

- 영국정부는 극심한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카다피에 대한 공습을 주도하며 시민군을 지원하여 리비아 재건사업에서 정치적 입지가 높은 상황임.
- 과거 카다피 정권하의 리비아 내에서 활동하던 영국기업들은 복귀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안전확보 문제가 복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전망이다.
- 2010년 기준 150여 개의 영국기업이 원유시추, 산업기기, 엔지니어링 등의 산업분야와 유통·소매업에 진출한 상황임.

※ 리비아 진출 영국 주요 기업: BP, Biwater, AMEC, JCB and Mott, MacDonald, Next, Monsoon, Accessorize, Marks & Spencer 등.

- 영국 산자부(BIS) 소속의 영국무역투자청(UK Trade & Investment)은 리비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영국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문제가 확보되는 대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영국기업은 리비아의 재건사업은 물론, 보건·교육·안보 분야 진출 가능성이 높으며, 석유와 가스사업 외에도 은행·통신 등의 분야에서 진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리비아 산업연맹(LBBC)은 15~2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리비아에 파견할 예정이며, 산업시설 보호 등을 담당하는 영국의 보안업체(G4S 등)들도 리비아 진출을 검토 중임.
- 한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정부가 리비아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영국정부는 다소 방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국내의 비판에 직면함(The Telegraph, 8월 28일).

나. 터키

■ 역사·문화·종교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리비아와 긴밀한 정치·경제관계를 맺어온 터키는 초창기 NATO의 군사개입에 미온적 입장을 취했으나 자국의 총리가 리비아연락그룹의 의장을 맡고 7월 이후에만 리비아에 3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시민군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1551년부터 1911년까지 리비아가 터키 오스만 제국의 치하에 놓여 있었던 만큼 양국은 역사·문화·종교적으로 유사하며, 최근 경제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양국 관계도 비교적 꾸준히 발전함.

- 터키는 리비아 제3의 수입대상국이며, 리비아는 투르크메니스탄(43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터키의 해외건설시장임.⁶⁾

○ 터키 건설업계의 리비아 시장 진출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음. KOTRA에 따르면 터키 건설업계는 2009~10년 동안 76억 2,700만 달러 상당의 124개 프로젝트를 리비아에서 수주, 추진한 바 있음. 내전 발발 이전에 진행되었던 공사는 150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⁷⁾되며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임.

■ 최근 리비아 사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자 터키 정부와 건설업계는 동결자산의 신속한 동결해제를 촉구하는 등 전후 복구사업에 박차를 가함.

- 터키 외교부 장관은 8월 23일 리비아를 공식 방문, 동결자산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제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터키의 관련 업계 측에서는 리비아 신규 정부와 미지급금⁸⁾ 지불 및 프로젝트 재개에 대한 논의를 희망함.

○ 과도국가위원회는 이미 지난 7월 15일 이스탄불에서의 회의를 통해 기존 터키 기업들의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다. 중국

■ 리비아의 제2의 수입국이자 제3의 수출대상국인 중국은 리비아 사태 발발 이후 공식적으로 '내정불간섭'을 원칙으로 해왔으며, 카다피 정권 몰락 이후 최근에는 과도국가위원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임.

- 양국은 1978년 양자무역협정과 경제·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1982년 중·리비아 경제무역 및 과학기

6) 해외건설협회(2011), 『월간 해외건설』, 6월호.

7) China Economic Net(2011). "News Analysis: Turkey Attempts to Play Role in Libyan Rebuilding." <http://en.ce.cn>. (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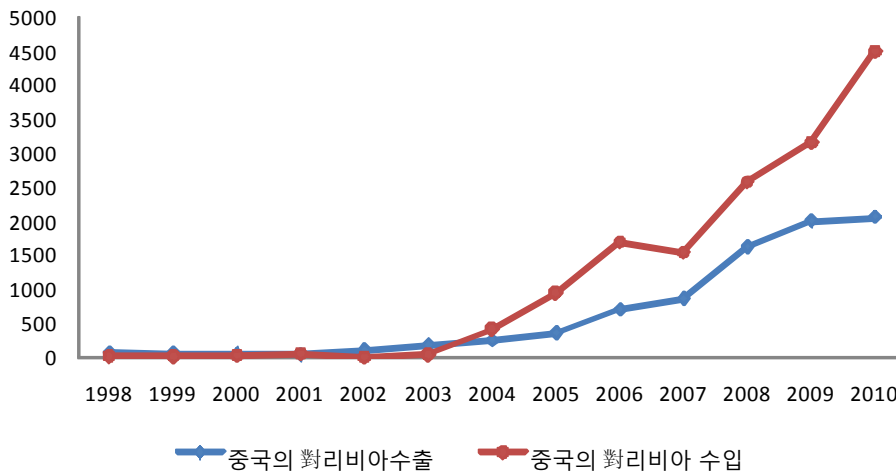
8) 리비아는 서방에 의해 1,410억 달러의 자산이 동결되어 있고, 이로 인해 터키도 현재 약 25억 달러의 자산 및 미지급금이 리비아에 묶여 있음.

슬협력위원회를 발족해 2011년까지 6회 개최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음.

- 중국의 대리비아 수출품은 주로 의류, 방직, 가구 등이며, 수입품의 대부분은 원유로 2000년 이래 교역규모가 꾸준히 증가해옴.

그림 7. 중국·리비아의 무역규모 변화(1998~2010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www.kita.net).

- 중국은 3월 군사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UN 안보리 표결에서 기권함.
 - 하지만 시민군의 승리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6월 이래 과도국가위원회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음.
 - 중국 외교부는 6월 과도국가위원회를 ‘중요한 대화상대자(重要對話方)’ 로 인정하고, 7월에는 뱅가지를 방문해 관계자를 만남.
 - 8월 22일 시민군의 수도 진입에 대해 중국정부는 “리비아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리비아 재건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는 입장을 밝힘.
- 중국이 리비아에서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은 사회 및 정치불안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다소 영향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리비아 재건에 필요한 프로젝트의 상당수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과도국가위원회는 카다피 정권을 지지했던 중국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였으나 서방국가들이 현재 자국의 막대한 재정부담 때문에 재건사업에 과감히 지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진출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히 리비아 사태 발발 이전부터 진출해 온 주택, 철도, 공공시설, 통신설비 등 각종 기초시설 건설공사 부문에서 타국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1981년부터 리비아에서 주택, 철도, 공공시설, 통신설비 등 각종 기초시설 건설공사에 참여하였으며,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까지 중국이 리비아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누적계약액은 총 4,269억 달러였음. 또한 페트로차이나 그룹 산하 7개 석유업체가 유전탐사 등에 참여하고 있음.

- 2011년 2월 기준 중국 75개 기업이 진출해 총 188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9월 2일 자이취안 부부장은 파리에서 과도국가위원회의 지브릴 대표와 회동하고 과도국가위원회가 주재리비아 중국기업의 권익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함.

라. 미국

■ 미국은 리비아 사태의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동맹국과 수위 조절을 하면서 군수 지원과 재금융 같은 제한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함.

- 1991년 걸프전, 2001년 아프가니스탄전, 2003년 이라크전 등을 통해 급증한 군사지출에 대한 부담과 아랍권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자국에 대한 반감을 의식하여 미국은 리비아 사태에 대해 제한적 지원을 결정함.
- 오바마 행정부는 군사개입 초기부터 리비아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미국보다는 유럽 국가들이 큰 관심을 갖는 사안이며 리비아의 안정도 유럽의 인구 이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역시 유럽의 문제라고 강조해옴.
- 리비아산 원유수입 금지(1982년) 이후 미·리비아 관계는 2000년 초반까지 냉각기였으나, 2003년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전격 선언한 후 2004년 국교를 재개함.
- 국교재개 이후 미국의 대리비아 수출이 4천만 달러(2004년 기준, 수입이 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래 매년 교역이 점차적으로 증가, 2010년 기준 미국의 대리비아 수출과 수입은 각각 6억 7천만 달러, 2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14억 5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시현함.
- 미국의 대리비아 수출품은 주로 자동차, 보일러기계류, 곡물, 광학기구측정기구정밀기기의료용기기 등이며, 수입품은 광물성연료에너지, 비료, 무기화합물 등임.
- 미국의 대리비아 직접투자총액은 16억 8천만 달러로 2006년에 대부분 이루어졌으나, 2008~09년에는 전무한 실정임.

■ 미국은 향후 포스트-카다피 체제하의 리비아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이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임.

- 리비아는 세계 전체 석유, 천연가스의 60% 이상이 매장되어 있는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미국의 중장기 에너지 및 외교안보적 차원⁹⁾에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임.

9)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은 다음과 같음. ① 테러 척결을 위해 아프간과 파키스탄에서 알카에다 및 탈레반을 분쇄, ② 이라크 전쟁의 책임 있는 종결, ③ 핵무기가 테러분자 수중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 ④ 미국은 항구적인 중동평화를 위해 노력, ⑤ 동맹의 재활성화(Re-energizing)를 추진, ⑥ 민주주의 기반이라는 미국의 핵심가치를 유지, ⑦ 아프리카 수단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선정, ⑧ 중남미에서 지도력 회복을 위해 노력, ⑨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리비아가 어떻게 안정을 찾아나갈 것인지가 최우선 관심사이며, 미국은 리비아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로 평화적인 전환을 하도록 지지하며, 재건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밝힘.
- 또한 미 국무부는 리비아 과도국가위원회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경찰을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바, 이는 리비아 정국 안정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로 해석됨(8월 25일).
- 그러나 자국 내 재정위기,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 전으로 인한 재정적·정치적 부담으로 리비아 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마. 러시아

■ 러시아 정부는 미국과 유럽의 리비아 공습에 반대해 왔으나, 리비아 반정부군의 세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입장을 선화, 최근 과도국가위원회를 리비아 내 합법 정부로 인정함.

- 러시아는 올해 3월 17일 UN 안보리의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투표에서 기권하며, NATO의 리비아 공습을 반대함.
-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시민군의 세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바뀌어 8월 22일 외무부 성명에서는 리비아에 합법적인 정권이 들어서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함.
- 러시아 외무부는 9월 1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과도국가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며, 새로운 헌법 개정과 총선을 통한 새로운 정부 구성 등의 개혁 프로그램을 지지한다고 밝힘.

■ 한편 러시아는 리비아 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의 리비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옴.

- 러시아 외무부는 8월 22일과 9월 1일 성명에서 러시아가 리비아와 오랫동안 맺어온 친선관계와 협력 관계를 강조함.
 - 카다피는 네 차례(1976년, 1981년, 1985년, 2008년)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였고, 러시아 지도자 중에서는 푸틴 전러시아 대통령이 최초로 2008년 리비아를 방문하였음.
 - 1995년에 이르러 무역 및 과학 기술협정이 체결되고, 양국 정부간 무역 및 과학기술위원회 설립 협정이 체결됨. 1998년 석유가스 및 에너지 부문의 경제협정이 체결되었음.
 - 최근의 교역규모는 2007년 2억 3,200만 달러, 2008년에는 1억 5,120만 달러이며, 러시아의 수출이 양국 교역액의 90% 이상을 차지함. 주요 수출품은 곡물, 기계, 자동차 등으로 구성됨.
 - 최근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 투자가 활발하며, 타트네프트(Tatneft), 가즈프롬(Gazprom)과 2005년 이후 입찰을 통해 6개의 석유 및 가스 광구에 대한 개발권을 획득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푸틴 전 대통령의 방문 기간인 2008년 4월에 22억 유로 규모의, 시르테-벵가지 간 554km에 이르는 철도 건설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며, 테크로프롬엑스포트(Technopromexport)사가 6억 달러 규모의 송전망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루살(Rusal)이 알루미늄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는 UN이 중심이 되어 리비아를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의 리비아 내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 러시아 정부는 기존의 에너지, 철도 부문의 투자와 무기 수출 등이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만큼, 과거와 같은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과도국가위원회는 카다피 정권을 지지하며 NATO의 군사개입을 반대했던 러시아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바 있음.

4. 시사점

가.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 카다피 축출 후 경제재건 및 원유 관련 사업에 참여하려는 다국적기업의 탐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EU 국가들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음.
 - 특히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민군의 승리가 선언되기 전부터 기업사절단을 파견하고 대리비아 투자·자선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정부·민간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힘쓰고 있음.
 - 이는 EU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함께 EU 국가들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향후 각국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프랑스는 리비아 사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외부 플레이어로 급부상하여 전후 재건계획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프랑스는 8월 말 트리폴리에 자국 대사관 운영을 재개하고 9월 1일 리비아 우호국 회의를 파리에서 개최함. 또한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리비아 재건 필요성 평가를 위해 EU 차원의 전문가를 파견할 것을 제안함.
- 중국과 러시아는 내전 초기 카다피 정권을 지지하며 NATO의 리비아 공습에 반대하였으나, 시민군의 세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입장을 선회한 후 향후 자국의 리비아 시장 진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과도정부위원회와의 관계 개선에 힘쓰고 있음.
 - 양국 모두 UN의 기틀 내에서 리비아 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EU와 미국의 리비아 내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임.
- 미국은 포스트-카다피 체제하의 리비아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미·리비아 교역 투자 관계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현재 미군 병력이 남아 있는 만큼 중동 내 제3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에는 무리임.

■ 터키는 7월 리비아에 3억 달러의 지원을 선언하는 등 향후 포스트-카다피 체제 재건사업 주도를 위해 박차를 가함.

- 기존 리비아 건설시장을 중국 및 우리나라와 함께 삼분하였던 터키는 재건사업 주도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취하고 그와 더불어 역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임.

나. 우리나라의 리비아 사태 대응 방안

■ 한국은 향후 리비아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터키 등의 국가와 유사한 수준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우리 건설업체의 높은 현지 인지도와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도로, 학교, 병원 등 전후 재건복구 시장 진출 전망이 밝을 것으로 전망됨.

- 1980년 12월 29일 수교 이후 한국의 동아건설이 1983년 11월 당시 단일공사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33억 달러에 수주하는 등, 양국의 관계는 경제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음.

- 특히 오랜 경제제재 기간 중에도 한국은 리비아 주재 공관 규모를 축소하지 않았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들도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성실히 계약된 공사를 이행하여 리비아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얻음.

- 우리 업체가 2010년 기준 총 해외누계 수주액의 8.6%인 364억 달러(294건)를 리비아에서 수주함에 따라 리비아는 우리의 제3대 해외건설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함. 2011년 2월 기준, 시공 중인 우리의 건설 프로젝트 규모는 약 105억 달러임.

■ 우리 업체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함께 리비아 건설시장을 주도하였던 터키와 중국의 진출 전략과 현황을 모니터링 및 분석해야 할 것임.

-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EU 국가들의 적극적인 정치·군사적 개입이 재건시장 확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역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기술수준과 가격경쟁력 및 시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우리의 주경쟁대상은 터키와 중국일 것으로 보임.

표 2. 국내기업의 리비아 건설 수주 현황

건설사	공사내용	수주액(억 달러)	공정률(%)
대우건설	미수라타 복합발전소	5.4	97
	벵가지 복합화력발전소	4.7	98
	즈위티나 복합화력 발전소	4.4	0
신한건설	자위아시 5,000가구 아파트	8.1	19
	질리톤 주택기반시설 토목공사	4.7	2
	트리폴리 5,000가구 주택공사	4.3	14
원건설	토브룩 5,000가구 주택 공공건물	9.4	0
	데르나 1,384가구 빌라 기반시설	2.3	71
	데르나 616가구 빌라 기반시설	1.3	20
이수건설	젠텐 3,300가구 프로젝트	4.2	1
한일건설	자위아 3,000가구 주거단지	6.7	4
	사르만 1,000가구 주거단지	2.1	14
현대건설	트리폴리 웨스트 발전소	13.6	0
	알카리즈 발전소	6.9	46
현대엠코	굽바시 2,000가구 주택 기반시설	4.4	17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8), 전문가풀 회의자료, 원자료: 해외건설.

- 터키는 리비아와의 역사종교문화적 동질성 및 무비자 협정을 바탕으로 접근성에서 매우 유리하며, 중국은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으로 건설시장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터키의 3억 달러 지원을 계기로 대대적인 리비아 재건사업 추진이 예상되는바, 터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리비아 재건사업 참여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터키 건설업체와 우리 업체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중앙아시아 및 중동지역 진출을 시도한 바 있으나 우리 업체가 터키 업체를 하청업체 정도로 생각함에 따라 실제로 성사된 경우는 아직까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짐.
- 기업사절단 파견 및 대리비아 투자·자선 박람회 개최 등 정부간·민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진출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장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향후 동부 출신을 중심으로 신정부가 구성되고 부족간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부족장과의 네트워크 교류 강화가 필요함.
-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주도하에 수도인 트리폴리와 동부지역 중심지인 벵가지에 기업 대표 사절단을 파견하거나 과도국가위원회 관계자를 서울로 초청해 대리비아 투자 및 자선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도 한 방법임.
- 정정불안으로 리비아 진출업체들의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가 예상되는바, 정부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및 금융지원이 요구됨.
- 장기 저리융자 형식을 통해 진출업체의 운영 정상화 비용과 수출기자재 비용을 지원하고, 수출보험 등을

통한 적극적인 위협관리가 필요함.

- 특히 산업시설 보호를 담당할 수 있는 보안업체의 진출 검토가 필요함.

■ 재건사업 진출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을 통해 리비아 국민을 돕는 동시에 우리의 현지 이미지 제고에 힘써야 함.

-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리비아 난민에 1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과도정부위원회에 1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임을 발표함(8월 23일).

- 리비아 전후 복구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리비아 지원사업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진의 파견,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시설 건설 등이 가능할 것임. **KIEP**